



PDJ가 진행하는 TBS FM 95.1MHz '아췌, 조은영입니다' '음악에 진심'을 들으며

김진서 TBS 라디오기술팀 기술감독

▶ 요즘 방송 뭐 봄? 우리는 들음!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는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시민을 위한 방송국이다. TBS는 TV프로그램도 많지만 FM, eFM으로 구성된 라디오 매체가 중심이 되는 방송사로 다수의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요즘 뭐 봄? 보다는 우리는 듣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 TBS는 외부진행자를 다 빼고 자급자족으로 방송을 제작한다. TBS FM은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으며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TBS MUSIC ONLY'라는 논스톱 음악 메들리로 매시간 다른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오늘은 뮤직 온리의 앞, 뒤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라디오방송의 생소한 장르인 PDJ가 진행하는 두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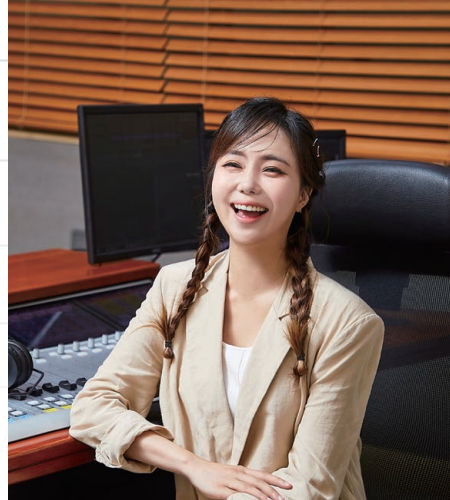


TBS FM 95.1MHz의 프로그램

▶ PDJ가 뭐지?

TBS는 창립 이래 삼십여 년 만에 용감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동안 보수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사내 분위기였기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하나의 라디오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감독을 제외하고 PD, DJ, 작가 등이 필요했는데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름하여, '피디제이(PDJ)', PD와 DJ를 합쳐진 말이다. 이를 두고 혹자는 전문성에 대한 걱정, 돌발 상황 대처에 대한 염려도 했다. 하지만 방송이 시작하고 반년 이상이 지난 지금 두터운 팬층도 생기고 동시간대 타 방송에 견주어 볼 때 오히려 완성도 있는 방송의 결과물이 나와 걱정했던 것이 기우였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췌, 조은영입니다> FM 95.1MHz 06:00



TBS의 1호 PDJ, 조은영 PD

<아췌, 조은영입니다>는 아침 6시에 진행되는 1시간짜리 데일리 프로그램이다. 아췌는 '아침 췌울발의 줄임말이자, 상큼한 에너지를 전하는 PDJ와 청취자 간의 암호로 설레는 단어 이미지를 통해 청취자들의 기분 좋은 아침을 선사한다.

<아췌, 조은영입니다>는 TBS의 1호 PDJ인 조은영 PD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병맛 B급 감성으로 청취자들의 아침에 신선하게 다가갔고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감성을 잃지 않았다.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짧게 치고 빠지되 탄탄하게 정비된 코너는 물론 다양한 아이디어, 감각적인 효과음, 현장 컷 등을 활용해 '일냈다' 싶을 정도로 아침 시작의 포문을 잘 열어주고 있다.

<아췌, 조은영입니다>는 오늘의 문장, 온종일 품어도 좋을 만한 하나의 문장을 제시하고 관련된 첫 곡을 들으며 문장의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오프닝을 시작으로 매일 코너와 요일 코너로 방송이 제작된다.

🕒 매일 코너

헤이 췌리아

매일 아침 전문 퍼스널트레이너에게 피티(PT) 체조를 받는, 췌! 하고 빠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췌!지피티가 부캐릭터로 등장한다. 조은영 PDJ가 인공지능 가짜 날씨 로봇 '췌리'로 변해(AI 역할도 PD가 자체적으로 한다) 병맛 B급 감성으로 날씨 소식을 전해준다.

조조클럽 (ASMR로 먹는 가상조식 Time)

청취자의 일상적 문자에 조지배인이 실시간으로 응답하며 거기에 딱 맞는 음식(조리하거나 먹는) ASMR로 위로와 격려, 나아가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ASMR은 사전에 직접 먹

📅 요일 코너

월 <훗 가사로운 것들>

미친 속도감을 즐겨라! 방금 뭐가 지나갔나 싶은 속사포 랩의 향연으로 진행되는 노래퀴즈

화 <어른들은 몰라요>

잠들어 있던 순수함 깨우기! 어린이 목소리가 등장하니 귀여워서 1번, 정답이 아리송해서 1번. 총 두 번 팔짝 뛰게 된다는 엉망진창 퀴즈쇼. 어린이 시선으로 보는 단어... 나는 얼마나 맞힐 수 있을까? 트로트, 아이돌 등 다양한 종류의 퀴즈를 통해 아침 두뇌를 Full 가동한다.

목 <'소'리가 주는 '확'실한 '행'복 소확행>

조은영 PDJ가 소리사냥꾼이 되어 직접 전국 방방곡곡의 소리를 채집한다. 딱 1분만 아무 생각 없이 소리명을 통해 아침부터 스트레스받으며 출근하는 이들에게 잠시 쉬어가라는 의미로 만든 소리힐링 코너이다.

토 <내 코가 대췌> with. 매일경제신문 신익수 여행전문기자

내가 코스를 대신 짜주겠다며 '대'신 코스 '짜'주는 '남'자 대췌님이 소개하는 랜선 여행. 조은영 PDJ와 신익수 기자의 정신 사나운 티키타카가 일품인 여행소개 코너이다.

아마 TBS에서는 첫 시도였기에 1인이 종합선물세트가 되는 개척자의 심경으로 시작했으리라 생각한다.

TBS PDJ 1호 프로그램으로서 훌륭히 안착한 <아췌, 조은영입니다>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100일 잔치 기념 '보이는 라디오' 진행

PDJ의 맛깔나는 음악 선곡이 일품이다. TBS FM 다수의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활약을 해서인지 탁월한 진행능력도 돋보인다.

김현우 PDJ는 대학시절 대학가요제 출전한 저력이 있어서 인지 음악 선곡에 있어 굉장한 내공이 쌓였는지도 모른다. <음악에 진심>은 하루의 문을 닫아주는 방송으로, 하루의 끝을 좋은 음악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필자도 이 방송에 투입되어 믹싱하는 것을 좋아한다. 평소에 음악을 많이 접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이 프로그램에게 굉장한 애착이 간다.

<음악에 진심> FM 95.1MHz 22:00



<음악에 진심>에서 PDJ로 활약 중인 김현우 PD

어렸을 때 심야 라디오방송을 들으며 잠을 자곤했다. 나중에는 라디오를 듣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라디오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고 TBS에서 라디오 기술감독으로 있게 해준 고맙고 친구같은 존재였다.

학창시절부터 라디오를 듣는 시간대는 학교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후부터 밤에 주로 많이 들었는데 웃고 떠드는 방송보다 잔잔한 음악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을 좋아했다.

두 번째로 소개해줄 PDJ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음악전문 라디오방송과 같은 프로그램인 <음악에 진심>이다.

<음악에 진심> 역시 데일리 프로그램으로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위로받는 음악전문 프로그램이다. TBS 라디오 PD 중 음악에 대한 견해가 풍부하고 지식도 많아 평소에 좋은 음악 선곡으로 유명한 김현우 PD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김현우

TBS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제작비가 없는 상황인데 <음악에 진심>은 매일 코너가 존재하고 게스트도 있으며 수요일에는 뮤지션들의 연주로 한밤에 음악회를 연다. <음악에 진심>도 매일 코너와 요일 코너가 있다.

🕒 매일 코너

요일코너에 앞서 1부에서 진행되는 매일코너에는 ROCK, SOUL FUNK, AOR, POP 7090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선곡의 달인' 선달이라고 불리는 김현우 PDJ의 선곡 센스를 느낄 수 있다.

📅 요일 코너

🌙 <월요일엔 발라드> <신곡나왔습니다>

<음악에 진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발라드 명곡들을 가수 '문원'의 라이브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감미로

운 발라드 음악을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라이브 음악과 함께 한 주간의 신곡을 소개하는 코너이다.

화 <씨니트랙>

하나의 주제에 맞는 선곡을 싱어송라이터 'Sunnie'가 직접 하고 라이브도 함께하는 코너이다. 선곡해주는 주옥같은 음악으로 다음날 출근길 플레이리스트 저장각이다.

수 <함춘호의 버스킹>

음악을 공부하는 대학생부터 이제 막 데뷔한 신인, 가수의 경력은 있으나 아직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음악인들의 라이브를 '대한민국기타' 함춘호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인과 촌장' 멤버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세션) 기타리스트 <함춘호의 버스킹> 중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코너의 퓨전국악밴드 '그라나다'

목 <홍대앞 놀이터> <빌보드 핫100 차트>

인디음악의 성지 홍대썬에서 요즘 주목하고 있는 음악을 재주소년 '박경환'이 재해석하여 소개해주는 시간이다. 알려지지 않는 음악이나 처음 듣는 음악도 있겠지만 듣다 보면 그 음악에 빠지곤 한다. 더하여 현재 전 세계인이 즐겨듣는 음악은 무엇인지 '빌보드 핫100'을 통해 알아보는 코너도 있다.

금 <너의 신청곡이 들려>

한 주간 수많은 청취자가 신청한 곡들로만 2시간의 짝 채운 음악퍼레이드 시간으로 신청곡과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해주는 코너이다.

주말 <빌보드 핫100 30년 전, 40년 전 차트>

8090 그 시절 팝송들을 빌보드차트와 함께 즐기는 시간.

출근해서 음악을 고르는데 시간을 다 쏟을 정도로 선곡에 대해서 시간과 정성을 많이 투자한 방송이다. 정말 '음악에 진심'인 진행자인게 분명하다.

성시경처럼 감미롭고 달콤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경상도 사투리가 친근하게 들리는 동네형이 들려주는 음악을 들어 보고 싶다면 매일 밤 10시 TBS FM이 흘러나오는 라디오 앞으로 향해보자.

▶ 같이 들어볼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예전 같이 라디오를 듣고 자란 세대가 아니라서 라디오와 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멀티테스킹이 가능한 유일한 매체가 라디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라디오 곁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그로 젊은 세대들 역시 라디오의 매력에 빠질 것이다.

어수선한 TBS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 두 프로그램이 이제는 고정 팬층도 생기고 성공적으로 청취자들의 루틴에 안착되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육각형 인간을 지향할 정도로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갈고 닦는 추세이다. 이제는 능력 있는 인재들이 해당 직군의 역할로만 있어서는 경쟁에서 뒤처지고 말 것이다.

스스로를 '나는 엔지니어니까, 나는 PD니까 이 일만 해야 해.'와 같이 규정짓거나 제약을 두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요즘 부캐(부캐릭터)로 활약하는 이들처럼 우리도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개인의 장점을 살려 부캐를 하나 정도 만들어보면 어떨까? 